

경제/채권전략



경제/채권전략

조용구, Ph.D.

cho.yong-gu@shinyoung.com

경제/채권전략 RA

조희원

cho.hee-won2@shinyoung.com

10월 FOMC: 과잉긴축 의지 부재

10월 FOMC, 정책금리 동결(3.75~4.00%) 결정

연준(Fed)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금리 동결 결정(10:2 표결).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긴축 기조로 전환한 이후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음.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또한 금융여건은 이전 보다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 금리 결정 회의 축소 방침을 발표

경기 판단과 인플레이션: 경제 강력한 속도 확장,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10월 성명서는 미국 경기 판단을 더 높게 평가한 점 외에는 변화 부재. 경제활동은 기존의 견고한(solid)에서 강력한(strong)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를 상향. 정부의 추가 축적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시의적절하게(timelier)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는 적시에(timely)라는 표현으로 대체. 25bp 금리 인상 소수의 견은 리사 쿡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제시

의장 기자회견: 금융여건, 전략 회의, TF, 물가목표, AI 영향, FG 불신 등

1)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긴축적이지만, 규정하고 싶지 않고 규정할 수 없음 2) 2027년 1회 통화정책 전략 회의, 2028년에는 2회로 확대. 내년 가을 시행 3) 물가안정은 특정 날짜나 특정 시점의 데이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4) TF 일부 연말까지 결론 발표, 대차대조표 TF는 내년 1분기 전후 5) 대통령 등 공직자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6) 오늘 회의는 엄청난 집안싸움 7) 완화되거나 암묵적인 물가목표는 없음 8) 최근 유가와 금리는 안정적인 상관관계 9) 금리 인상이 AI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회의적 10) AI 설비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11) 정치적 이슈의 금리 결정 영향은 없음 12) 긴급한 상황이나 위기가 없는 한 포워드 가이드를 믿지 않음 13) 기술 발전 동력을 관찰하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많은 관심 14) 9월 금리 결정의 금융시장 영향은 기대에 전반적으로 부합 15) 경제가 과열되었다고 보지 않음

앞서간 기대보다 느린 인상 속도, 금융시장 스스로 판단하라는 기조 강화

10월 FOMC에서 정책금리 동결과 인상 소수의견 제시는 시장 및 당사 예상에 부합. 다만 소수의견은 예상보다 적었고, 리사 쿡 이사의 소수의견도 유의미한 변화. 워시 의장은 9월 대비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며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기대에 부합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여 단기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상승 마감. 경기 판단이 강화된 가운데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성명서도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적인 정보 축적을 명시하여 12월 인상 실현 전망. 관건은 추가 인상의 여부인데, 물가의 2차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9월 이후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최종 4.50%를 baseline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 다만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위험회피 확산을 유발하거나 투기등급 신용 스프레드의 투자등급 전이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 워시의 일관된 기조는 사전지침 없이 지표를 통해 금융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시장금리는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

2026년 10월 FOMC 성명서 전문

구분	성명서 전문	주요 내용
정책 결정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pprov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release by a 10 – 2 vote: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0 대 2의 표결로 다음 성명을 발표하기로 승인했다.
통화정책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3/4 to 4 percent, in support of the Federal Reserve’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 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 내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 판단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trong pace. While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owing, in part, to geopolitical developments,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	경제 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지정학적 전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 지출은 탄력적이었다. 생산성 증가는 강하며, 자본 투자는 탄탄하다. 고용 증가는 노동력 증가 속도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Inflation remains elevated. The accumulation of more information will help the Committee determine the policy stance appropriat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 The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더 많은 정보의 축적은 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다.
소수의견	Voting against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Lisa D. Cook and Beth M. Hammack, who preferr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t this meeting.	이번 통화정책 조치에 리사 쿡과 베스 해맥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선호했다.

자료 : FR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